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이근후 열린마음 클리닉 미술치료사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박 은 선

미술치료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표현 예술 치료의 한 분야로 용어 그대로 미술과 치료가 결합된 치료 형태이다.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두 개념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치료가 과연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미술치료의 적용 범위가 넓고 미술이라는 매체가 다분히 체험을 기본으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에 대한 이해 역시 쉽지는 않다. 본 강의는 이런 미술치료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호스피스 개념 아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술치료의 정의

다른 전통적인 치료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미술치료는 말 그대로 미술이라는 매체를 치료에 적용시킨 것을 말한다. 미술의 어떤 측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미술치료 역시 세분화 될 수 있지만 미술 치료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술 활동은 자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작가들의 생각이나 감정, 꿈, 열정들이 녹아있는 미술 작품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교감을 가질 수 있듯이 미술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수단이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자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치유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미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며, 이러한 자기 표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 몫을 하게 된다.

미술치료는 크게 '치료로서의 미술(art as therapy)'과 '미술심리치료(art psychotherapy)'로 나누어 발전되어 왔다. 치료로서의 미술이란 개념은 미술 창작 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치유의 힘을 강조한 것으로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진술하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개인적 충만감, 감정적인 배상, 그리고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건강의 증진과 개인의 성장을 유도하는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치료적이라는 의견이다. 미술 심리 치료란 개념은 미술 작품이 내담자의 개인적 정서, 이슈, 갈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징적 대화의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심리치료가 필수이며 미술의 이미지는 언어적인 교류를 증가시키는 수단인 된다. 또한 미술은 새로운 깨달음을 촉진시킬 수 있고 갈등의 해소, 문제 해결, 새로운 지각의 형성으로 긍정적인 변화, 성장, 치유를 이끌어낸다. 현실적으로 많은 미술치료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개념을 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술치료의 치료적 속성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치료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결과. 일반적으로 미술치료가 받고 있는 오해 중의 하나가 그림 그리기가 익숙한 사람이나 잘 그리는 사람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치료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미술이 일반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너무 전문화 되어버린 사회적 분위기에 있기도 하다. 하지만 종종 임상 현장에서는 가장 적용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에게서 가장 필요하고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미술치료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인 속성이 다양하고 적용 대상에 따라 즉 치료적인 목적에 따라 그 다른 속성들을 다양하게 적용시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미술은 내면의 표현이며 비언어적인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사고, 지각을 이미지를 통해 정리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각적 사고의 증거이다. 실지로 개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나 경험은 사진을 찍듯이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험을 풀어내는 과정 역시 언어적인 측면 보다는 소리나 냄새, 이미지 등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렇듯 이미지 즉 미술은 언어보다도 더 먼저, 더 가까이 무의식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시각적 언어(이미지)는 음성적 언어(말, 글)가 대화의 우선 수단인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친숙한 매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속성이 유리한 점은 내담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정보들에 접근하기가 쉽다는 것이며 그 정보들이 언어로 표현될 때보다 더 즉각

적이고 생생하게 그려진다는 점이다. 즉 말로 표현되지 못하거나 감정이나 사고가 말로 포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법칙이 없고 검열이 적은 자유로운 매체 즉 미술을 통한 경우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 또는 아직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할 만큼 다양한 언어 습득이 되지 않은 어린 아동의 경우 미술 표현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일한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미술은 감정적인 분출을 용이하게 해준다.

감정의 분출 즉 카타르시스란 강한 감정을 표현하고 방출하여 안도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 미술치료에서는 작품을 통해 감정들을 속에서 꺼내어 표현하거나 또는 표현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해소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감정의 분출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경우에는 분출이 또 다른 고통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분출에서 나아가 행동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통로를 찾는 경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감정들은 사회적으로 표현이 제한되어 있는, 부정적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 슬픔, 파괴적 충동 등이다. 그러므로 이런 감정들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치료 시간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미술치료의 제작과정과 미술 작품

미술은 처음에 재료를 준비하고 제작 활동의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재료를 혼합하고, 만지고, 빚고, 그리고, 풀로 붙이고, 합치고, 칠하고, 형태를 만드는 등 손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 바로 작품인데 이는

작업의 기록으로서 다른 시간대에 제작된 다른 작품과 비교가 가능하며 내담자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의 역할을 한다. 작품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내담자들은 자신의 변화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작품의 제작 과정은 성취감을 부여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회피하기 쉬운 모험이나 위험을 부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태도는 작품의 제작에 있어서 많은 시도를 권장하며 실수를 허용하는 환경에서 습득될 수 있다. 실수가 생기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시도되므로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감과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미술은 인지의 수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스트레스, 우울증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 미술 치료사인 팻 엘렌은 미술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알아 나간다고 주장한다. 미술치료 과정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재구성함으로써 고통, 우울증의 원인을 찾거나 즐거움, 창조적 잠재력의 근원을 밝히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의 제공, 관점의 전환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치료에 있어서 인지적인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 그 이유는 미술적 발달이 아동의 인지, 언어, 정서, 지각적 발달과 같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미술치료에서는 미술이 인지적 기술의 확인 및 평가에 사용될 수 있으며 발달을 이끌어주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색상의 섞임이라든가 재료의 속성 변화 등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개념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인지적 접근 교재들이 미술의 요소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정서와 인지는 상호 작용한다. 예를

들어 또래의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동은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느낌을 가지기 쉽다. 뇌출혈로 언어장애를 얻은 성인의 경우 좌절하거나 우울해지기 쉽다. 이렇듯 인지적 접근은 사고뿐 만 아니라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기 확신을 세우는 정서에도 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과 성인들의 정서에 접근하는데도 미술적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속성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술치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생존이 위협받는 환경에서도 창작 활동이 중요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이를 통해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변화시킨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다. 고향의 삶을 보더라도 주옥같은 작품들을 왕성히 제작하던 시기가 바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힘든 시기에 미술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실존적 매체로 자리 잡은 것이다.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의미 있고 진솔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은 한 개인의 삶을 풍부하게 한다. 이러한 개념은 퇴행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병의 말기에 접어든 환자들¹⁾, 그리고 전 생애에 걸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의 경우 특히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의 내담자들의 경우 자신의 가지고 있는 병이나 장애가 단시간 내에 치유되지 않거나 'cure' 보다는 'care'의 개념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의 목표가 고유의 증상이 기보다는 일상적이고 전인격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된다. 호스피스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환경 내에서 미술치료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다를 수 있는 이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술치료에서는 '내담자(client)'라는 용어를 선호하나 병원 내에서는 '환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본문에서는 '내담자'와 '환자'를 함께 사용하였다.

1. 즐거움

즐거움은 다른 무거운 혹은 진지한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이슈이나 조금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일상을 되새겨 보면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늘 웃는 얼굴인 사람들조차 그 웃음 중 얼마가 정말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묻는다면 의외의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움의 효력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실험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데 즐거움 혹은 웃음이 단지 감정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술은 이런 즐거움의 제공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림을 그려본 기억이 까마득한 어른들에게 크레파스를 주고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 어색함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 그 어색함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수줍은 미소이다. 그 미소는 아마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왕성하게 그림을 그린 것은 어린 시절이다. 그러므로 크레파스와 함께 그 시절에 경험한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고 남의 평가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던 그때의 자신 그리고 자긍심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술치료는 평가나 경쟁이 배제된 상황 하에서 자신의 창조성에 집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다. 새로운 생각이나 표현 방법, 사물을 보는 눈을 실험하면서 놀이와 같은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통증이 완화되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에게서 조금은 벗어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병 자체보다 인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감정적 분출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장애나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밝은 사람들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 모두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직·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 하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감정들은 주로 두려움이나 분노, 죄책감, 고통, 무기력감, 슬픔 등 사회적인 통념 상 표현이 용이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런 감정들이 적절한 통로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 수 있으며 자신의 아픔이 이해받고 수용된다는 점에서 한 개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분노를 물건을 집어 던진다던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하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와 미술작업 즉 승화라는 과정을 통해 표현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어느 경우가 나의 분노를 전달하고 이해받고 그로써 감정에 대한 해소를 기대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하는가. 행동이 직접적으로 감정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감정의 해소로 연결되기에는 정황상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의 표현과 해소에 있어서 적절한 통로로써 제공되는 것 중 하나가 미술일 수 있다.

3.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상 회복

의학적인 처치를 오랜 기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신체에 대한 무기력감, 수동성, 통제력 상실 및 기능의 상실이다. 특히 병의 회복이 보장되지 않거나 퇴행적으로 진행되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인 경우 한 인간으로서의 기능은 점차로 상실되어간다. 이런 경우 주된 치료인 의학적인 처치 면에서 환자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통제권 역시 상실된다. 그런 경우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행위 즉 미술활동은 한 개인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이미지에서 창조하는 인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

4. 삶의 의미에 대한 고찰

삶과 죽음은 양 극이 아니라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고찰은 자신의 끝에 대한 고찰과 맞물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찰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는데 주로 환자나 가족, 그리고 기관의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인 입장 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지는 세심하고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희망이라는 개념 역시 예민한 과제에 속할 수 있는데 희망의 유무 보다는 무엇에 대한 희망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한다. 이는 현재의 혼란에 대한 정리와 삶에 대한 의미 부여,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심리적 문제들, 인간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술은 여기서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재경험 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을 돕는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경우 그것을 해결할 당사자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나 시일이 지나서 정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 미술은 대리적인 직면 및 해결의 통로를 제시한다.

미술의 영역 및 활동

그러면 어떤 미술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미술의 영역, 재료, 치료의 형태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술의 영역

미술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은 '나는 재주가 없어서 힘들다' 라든가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미술인가'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술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미술이라고 하면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술치료에서 다루는 미술은 '그 개인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자유롭고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리거나 만드는 과정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자신 혹은 타인의 미술작품을 적극적으로 감상하는 과정까지 미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특히 중요한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 고정적인 그리기, 만들기 영역의 고수는 활동의 제한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몸을 움직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작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신체적인 조건 상 침대를 벗어날 수 없고 그로 인해 직접적인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이로 인해 미술치료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이나 감상을 통해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나 내담자를 대하는 치료사나 봉사자, 의료인들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미술재료 및 환경

미술재료는 크게 전통적인 미술재료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 재료의 미술적 활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술 활동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의 경우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가 단시간 내에 두려움 없이 작업하는데 좋다. 예를 들어 크레파스나 싸인펜, 풀라주를 위한 잡지 등이 상대적으로 친숙한 재료에 속하는데 바느질에 익숙한

성인 여성의 경우 천과 바늘이, 그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입체작업을 할 수 있는 박스나 찰흙 등도 적절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생활 재료의 경우 돌, 모래, 쌀, 콩, 국수, 잎사귀, 나뭇가지, 밀가루, 옥수수전분, 소금, 향 추출물, 오트밀, 푸딩, 젤리, 면도크림, 스폰지, 사포, 깃털, 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외에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나 사진 등도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재료에 속한다. 특히 개인의 삶의 의미를 다루는 경우 이렇게 개인적인 기억을 담은 재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어떤 재료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하는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요소의 고찰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첫째가 환자의 내적 욕구이다. 감정을 유연하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유동적인 특성을 가진 재료 즉 천이나 물감, 찰흙 등이 적절하다. 무엇인가를 정리하거나 인지적인 영역에서의 작업이 주가 될 경우 그러한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 즉 펜 종류나 박스, 책 등 구조적인 속성을 가진 재료가 적절할 것이다.

두 번째는 환자의 지각, 운동적 상황에 대한 고려이다. 만일 내담자가 손에 힘이 없거나 얇은 펜을 쥐기가 어려운 경우 두껍고 쉽게 썬지는 마커나 쉽게 구부러지는 공예용 철사 등이 적절하며 시지각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배경과 두드러지는 화지를 사용한다거나 원색을 주로 준비한다거나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환자의 침대에서 미술치료가 진행될 경우라면 줄줄 흐르는 물감이나 더러워지기 쉬운 파스텔, 찰흙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레파스나 마커 등이 적당하다. 콜라주를 위해 잡지나 색종이를 오려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가위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손으로도 잘 찢어지는 종이를 준비하거나 미리 오려둔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소를 들 수 있는데 물 등 자원의 사용 여부나 공간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미술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은 충분한 작업 공간 및 재료장, 용이한 물 사용, 사적인 영역의 확보 등을 갖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제공되는 환경 내에서의 타협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 내에서 가능한 재료나 활동을 디자인하거나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술치료의 형태

미술 활동 역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크게 개인 작업과 그룹 작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룹 작업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끼리 동질감을 통해서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받을 수 있고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돌아봄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의미나 역할에 대해 다룰 수 있다. 구성원들이 공통의 문제를 가진 경우 이런 작업이 단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룹 작업은 일반적으로 따로 준비된 작업실이나 휴게실 등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매우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거나 물리적으로 그룹실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 경우 그룹실을 개인 작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인 병실을 사용한다. 개인 작업은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좀 더 심도있게 그리고 세심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치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사는 이들의 참여가 어떤 의미 및 영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

다. 미국의 경우 어떤 가족들은 환자 혹은 내담자의 사후에도 병원에서 미술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치료사는 곁에 없는 인물에 대한 가족의 애도와 상실감, 추억의 정리 과정에 참여하였다.

의 질이라는 주제는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전인격적인 접근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의 핵심에는 환자와 치료자(혹은 봉사자)와의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

맺 음 말

이상으로 미술치료의 의미 및 치료적인 속성 그리고 말기 환자들의 경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대주제는 단지 치료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중요한 화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치료 영역에서는 다분히 감상적이고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으로 여겨지기 쉬운 위험이 있다. 다행히 요즘 well-being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측면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탐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삶

참 고 문 헌

- 1) Case C, Dalley T. The handbook of art therapy. Routledge, 1995
- 2) Henley D. Stereotypes in children's art: Art therapeutic interventions using lowenfeld's motivational techniques. The American Journal of Art Therapy 1989;27:116-25
- 3) Kramer E. Art as therapy with children. Magnolia Street Publishers, 1993
- 4) Lowenfeld V, Brittain WL. Creative and Mental Growth. Prentice-Hall Inc, 1987
- 5) Rubin J. Approaches to art therapy: Theory and technique. Brunner/Mazel, Inc, 1987
- 6) Wadeson H. The dynamics of art psychotherapy. John Wiley & Sons, Inc, 1987